

환율과 물가



이상학

(前)고보생명노조위원장

IMF의 고환율정책으로 소비자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98년 1월의 소비자 물가가 2.4%나 급등하였다고 한다. 부문별로는 유류가격이 6.7%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공업제품가격이 3.5%, 공공요금 2.6%순으로 나타났으며 집세는 전혀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관리체제로 들어간 이후 환율이 폭등하면서 환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류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거비가 인상되지 않았으며 소비위축으로 농수축산물은 1.5%의 상승에 그치고

있다.

지난 70년 오일쇼크 이후 최대의 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폭발적인 물가상승 원인을 환율의 급격한 상승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지난해 11월부터 급상승한 달러대비 원화환율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유류, 설탕, 밀가루 등 직접 수입하는 물건의 값은 이미 폭등하고 있으며, 이들 원자재에 대한 의존 비율이 높은 각종 공산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다. 그러면 폭등한 환율이 소비자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

〈표 1〉 1997년 1월 - 12월중 통화별 月평균/年평균 환율

구 분	USD	JPY	DEM	GBP	FRF	CHF
年평균	949.87	782.99	548.98	1558.34	162.79	656.01
12월	1484.08	1143.59	848.81	2466.36	249.40	1032.36
11월	1025.58	819.58	592.33	1730.75	176.87	729.66
10월	921.85	761.12	524.72	1502.99	156.38	634.28
09월	909.53	751.95	508.12	1456.99	151.19	617.22
08월	895.90	760.09	487.11	1439.71	144.55	592.37
07월	890.50	773.97	498.06	1490.39	147.60	602.10
06월	889.50	778.21	515.22	1463.40	152.67	618.64
05월	892.00	752.67	524.38	1456.82	155.43	625.22
04월	893.50	711.39	522.15	1456.62	155.02	611.46
03월	879.40	716.82	518.90	1415.81	153.88	600.86
02월	866.80	704.65	517.99	1407.27	153.46	596.65
01월	849.80	721.87	530.00	1412.95	157.09	611.33

• 주) 상기 환율은 금융결제원 고시 재정기준환율임.

환율변동추이

지난 11월 외환위기가 시작되기 전 800-900원대를 유지하던 원화환율은 11월에는 1025.58, 12월에는 1484.08대를 기록하였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한때 2,000원에 육박하기도 하였으며 1월 이후에도 1,500-1,7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은 97년 연초 대비 1.7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97년 연평균환율대비 1.5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환위기로 인하여 지난해 12월 원화환율은 56%내지 75%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성, LG 경제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들이 내놓은 98년도 1/4분기 환율예상치는 1,430-1,500원대이며, 98년 연평균 환율은 1,100-1,378원이다. 이러한 전망치

는 97년 말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최소 예상치인 1,430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7년 연초대비 68%, 97년 연평균환율 대비 50%가 상승하게 된다.

환율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김종만의 연구는 환율의 변동이 국내 가격 및 각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어주고 있다. 김영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환율이 인상된 분기인 0분기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으나(0.093%) 2분기, 3분기에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의 상승은 환율상승시기에 직접적으로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2-4분기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영향이 강하게

(표 2) 원/달러환율 1% 상승이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단위 %)

	환율변동 후 경과기간						
	0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년	3년
수입품 국내가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생산자물가	+0.259	+0.422	+0.425	+0.433	+0.443	+0.454	+0.454
소비자물가	+0.093	+0.231	+0.303	+0.357	+0.361	+0.372	+0.373
제조업임금	+0.000	+0.029	+0.130	+0.246	+0.317	+0.373	+0.374

* 주 : 환율상승 이전과 비교할 때 각 변수 수준의 차이를 표시함.

* 자료 : 김종만,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년.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상승은 원자재가격을 인상시키고 원자재가격은 각종 공산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는 구조를 김종만의 연구는 잘 나타내주고 있다.

IMF 관리체제 이후 높아진 환율을 김영만의 연구결과에 그대로 적용하여본 것이 <표3>이다. 우리는 97년 12월과 98년 1/4분기의 환율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김영만의 연구를 사용하였다.

<표3>과 같이 계산하여 환율과 물가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지만 환율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괄적인 윤곽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3>에서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대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97년 12월의 월평균 환율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98년 1/4분기 환율에상치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으며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준시점도 97년 연초의 환

율과 97년 연평균환율의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였다.

김종만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97년 12월과 98년 1/4분기의 환율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는 97년 말에는 5-6%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98년 말에는 17-27%에 이를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

물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는 첫째, 시장의 수급을 들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시장에서 상품가격이 크게 오르면 공급에 비해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즉 물가를 변동시키는 요인에는 상품에 대한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미쳐 물가를 변동시킨다.

먼저 수요요인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반대로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게 되면 물가는 떨어지게 되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되면 이 점에서 일반물가수준이 결정된

〈표 3〉 환율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기준시점과 기준환율	97년12월	98년3월	98년6월	98년9월	98년12월	99년말	2000년 말
97년 12월 평균환율	97년연초 대비1) 6.9	17.3	22.7	26.7	27.0	27.9	27.9
	97년연 평균환율 대비2) 5.2	12.9	16.9	19.9	20.2	20.8	20.8
98년 1/4분기 환율 예상치	97년 연초 대비	6.3	15.7	20.6	24.2	24.5	25.2
	97년 연평균 환율 대비	4.6	11.5	15.1	17.8	18.0	18.6

- * 주1) 97년 연초 대비 97년12월 월평균환율 상승율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 2) 97년 연평균환율 대비 97년 12월 월평균환율 상승율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 3) 97년 연초 대비 98년 1/4분기 환율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 4) 97년 연평균 환율대비 98년 1/4분기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다. 개별 상품을 예로 들면 어떤 상품의 가격이 2,000원 이라고 할 때 사려고 하는 수량은 1,000개인데 팔려고 하는 수량은 500개 뿐이라고 하자. 이와 같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현재보다 다소 비싼 2,000원 이상을 내고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 상품가격은 상승한다. 반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팔려고 하는 수량은 1,500개인데 사고자 하는 수량은 1,000개일 경우에는 현재의 2,000원 이하로 가격을 떨어뜨려서라도 팔려고 내놓는 사람이 늘게 되어 가격은 하락한다. 그리하여 이론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되어 균형가격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상품은 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어 물가를 변동시키는 수급요인에는 통화량, 소득, 소비수준 및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과 같이 주로 수요의 변화를 초래하여 물가를 변동시키는 요인과 생산기술 및 설비, 수출입, 자연조건 등과 같이 주로 공급측에 영향을 초래하여 물가를 변동시키는 요인이 있다. 만일 공급능력이 한계에 달하여 더 이상 공급이 늘어나지 못한다고 가정할 때 수요 측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통화량의 변동이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전보다 돈을 더 많이 갖게 되어 과거에 사고 싶어도 못사던 물건을 구입하려하므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통화량이 늘면 얼마 후 물가가 따라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음 소득의 경우는 가계구매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수준도 높아지게 되어 수요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또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플레이션기대심리(물가오름세심

리)에 의한 물가상승을 들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물가동향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면 사람들은 물가는 으레히 오르게 마련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돈을 아껴 저축을 해 보았자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보게 되므로 사람들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미리 사두려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이른바 가수요가 생겨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한편 공급측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생산기술의 진보나 생산설비의 증설은 상품의 공급물량을 증대시켜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며 수출입물량의 증감은 상품의 국내공급량에 영향을 준다. 가뭄, 홍수 등과 같은 자연조건의 변화도 생산량에 영향을 미쳐 물가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물가를 변동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 비용요인을 들 수 있다. 비용요인으로는 원자재가격, 환율, 임금, 세금, 금융비용, 유통비용 및 부동산임차료 등과 같이 상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해당된다.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재가격의 움직임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원자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원자재가격의 상승은 국내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73년과 1979년의 석유파동 직후 국내물가가 연간 40% 이상 올랐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또한 임금의 경우는 근로자측에서 볼 때는 소득이지만 기업측에서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비용항목이 되므로 생산성향상분을 초과하는 임금의 상승은 제조원가의 상승을 통해 물가에 상승압력을 주게 된다.

한편 세물인상에 따른 세액부담의 증가와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나 유통비용의 증가 및 부동산 임차비용의 상승 등도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물가를 오르게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수요요인이나 비용요인 이외에도 유통구조나 경쟁같은 경제구조적 요인과 정부의 가격관리정책 등과 같은 제도적요인도 물가에 영향을 준다. 즉 유통단계가 복잡할수록 상품가격에 유통마진 등이 추가되어 물가가 오르게 되며 시장형태가 경쟁이 없는 독과점적인 구조일 경우에는 상품가격이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결정되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물가변동요인에는 경제적요인이나 경제적외적인 또는 대내적요인이나 대외적요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물가의 변동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물가변동의 원인과 그 과정을 명확히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연말 소비자물가 9%는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소비자 물가는 국내외의 여러가지 요인이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 된다. 환율 외에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많이 있다. 국내경기의 극심한 위축, 통화긴축 등은 소비국내시장을 위축시키는 물가하락 요인이고, 원자재가격 상승, 세금인상 등은 물가상승 요인이 된다.

김대중 차기 대통령이 밝힌 유통구조 개선도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과 사회전반의 구조조정도 제품원가

를 낮추어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고금리와 각종 세금의 인상은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위의 다른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비해 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은 분명하다. 환율요인으로 인한 20% 내외의 물가인상이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된다고 하더라도 98년 말 소비자 물가는 살인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환율 인상 요인을 놓고 보았을 때 연말물가 9% 목표는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

공부하는 노동자가 됩시다

『노동의 인간화』(7,000원)

『산별노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10,000원)

『자동차산업의 원하청관계와 노동자간 격차』(7,000원)

월간 『노동사회』 각 월호(6,000원)

구입하실 분은 연구소로 연락바랍니다. [전화 (02)778-4225]